



* KB 금융그룹

KB금융그룹

끊임없는 '상생경영'으로 국민과 함께 성장합니다

CHECK POINT

- ✓ 차별화된 상생경영을 통해 금융의 선한 영향력 발휘
- ✓ 저출생 현상 해결을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드는 데 앞장서는 KB금융
- ✓ 소상공인과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 성장을 견인
- ✓ 주주 가치 제고 위한 KB의 지속 가능한 밸류업 적극 추진
- ✓ K-Bee 프로젝트, 숲 조성 프로젝트 등 생물 다양성과 지역사회 보호를 위한 친환경 캠페인 시행
- ✓ 전 계열사가 한마음으로 글로벌 상생경영 실천에 동참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KB금융그룹은 그룹 미션인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실천하며 차별화된 상생경영을 통해 전 세계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청년세대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KB굿잡 취업박람회'도 개최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건강한 아침밥 확산을 위한 '천 원의 아침밥' 사업에 동참하여 100만 명분의 식사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게 업소로 선정된 가게를 대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원금을 지원하는 'KB마음가게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KB금융은 지난 4월 업계 최초로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인 배당 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도입하고, 5월 국내 최초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예고 공시하는 등 밸류업 모범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아이들이 행복한 내일, 건강한 환경을 위한 KB금융의 노력

KB금융그룹은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 원을 투입, 전국 총 2,265개의 공공립 병설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신·증설하는 등 온종일 돌봄사업을 지원했다. 지난해 2월부터는 5년간 총 500억 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가점형 늘봄센터'를 개관하고 있다. 가점형 늘봄센터는 초·중학생 대상 평일 7시 및 방학기간에도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늘봄학교 정책이 현장에 확산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꿀벌 생태계 회복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2022년부터 'K-Bee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여의도 KB 국민은행 본관, 서울 서대문구청 옥상 등 도심 내 꿀벌 사식지를 조성한 것. 지난해에는 10만 그루의 묘목을 심어 강원도 홍천 지역에 첫 밀원숲을 조성한 데 이어, 올해에는 경상북도 울진군 산불피해 지역에 총 10ha 규모의 두 번째 밀원숲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경남 남해군을 중심으로 바다 서식처가 진행 중인 해역 내에 잘피숲을 조성하고 해양 폐기물 수거 등 수중 및 연안 정화 활동을 하는 KB바디숲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CEO INTERVIEW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KB금융그룹이 한국표준협회 2024 대한민국 혁신대상을 받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KB금융그룹의 사명적 소명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사회와 끊임없이 상생하는 경영,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주는 경영, 주주의 지지와 응원에 보답하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명적 과제인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늘봄학교와 연계한 '온종일 돌봄사업, 생태계 회복 및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K-Bee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앞으로도 KB금융만의 차별화된 상생경영을 통해 전 세계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